

제5차 중동전쟁 위기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이스라엘의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이 공격으로 지금까지 최소한 3백30명 이상의 레바논인과 1백2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의 압도 다수는 무고한 민간인이다. 레바논에서만 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미국 하원과 상원은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지난 목요일에는 미 해병대가 자국민 철수 작전을 위해 23년 만에 처음으로 레바논에 상륙했다. 또, 미국은 항공모함 등 5척의 함정과 2천2백 명의 해병을 레바논 근해로 급파했다.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은 안정과 민주주의는커녕 학살과 야만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자국 병사 ‘납치’에 따른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악한 거짓말이다.

이번 공격이 있기 전에도 이스라엘은 걸핏하면 레바논을 공격해 왔다. 심지어, 2005년에 레바논 남부에서 공식 철군한 뒤에도 공격은 주기적으로 반복됐다. 또, 지난 1월 팔레스타인 총선 이후 이스라엘은 경제 봉쇄와 민간인 폭격을 통해 하마스 정부 붕괴를 획책해 왔다.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면 공격은 — 과거와 마찬가지로 — 이슬람주의 게릴라헤즈볼라에 붙잡힌 두 명의 이스라엘 병사를 구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이 있다.”(〈파이낸셜 타임스〉 7월 17일지 사설)

첫째, 단기적 목표는 헤즈볼라의 정치적·군사적 무력화이고 나아가 레바논 내 친서방·친이스라엘 정부 수립을 노린 것이다.

2005년 2월 레바논 전(前) 총리 라피크 하리리의 암살과 그 뒤 이른바 “백향목 혁명” 덕분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던 시리아 군대를 쫓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레바논 소년

달리 새로 구성된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강제하지 못했고,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이 직접 나서 헤즈볼라를 제거하려 하고 있다.

둘째,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은 부시가 선언한 “테러와의 전쟁”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의 핵심 공격 대상에는 이란과 시리아가 포함돼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추구하는 목표를 가장 열렬히 지지할 뿐 아니라 그 나름의 강력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스라엘 지배자들은 이란의 핵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독자 행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천명해 왔다.

이스라엘의 공세가 시리아나 이란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스라엘은 1982년 침공 때 이루지 못했던 목표(친이스라엘 정부 수립과 저항 세력 박멸)를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려고 작심한 듯하다. 육해공 봉쇄와 폭격에 이어 이스라엘 군대는 대규모 — 사단 규모

이상의 — 지상군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엄청난 재앙을 부를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제5차 중동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최근 부시 정부는 이란과의 직접 협상 수용 의지를 밝혀 왔다. 이것은 대체로 하디타 학살 폭로 등 이라크 위기의 심화와 이란 확전 결과에 대한 미국 군부의 우려 때문이었다.

반면, 네오콘 핵심 인사들은 부시와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가 북한과 이란에 대해 ‘유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해 왔고,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응징을 주장해 왔다.

우파의 압력을 받아 부시 정부는 확전을 지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끔찍한 파괴가 뒤따르겠지만 다른 한편, 거대한 저항도 분출시킬 것이다. 세번째 대규모 이라크 파병국인 한국의 반전 운동은 자이툰을 이라크에서 철수시킴으로써 중동에서 미국의 위기를 심화시켜야 한다.

왜 민주노동당이 반전 운동에 앞장서야 하는가



2004년 7월 반전 집회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노동당

현재 국제 정치의 핵심은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 지역이다. 여기에 워싱턴 전쟁광들의 힘이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이라크에서 미국은 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라크 수령 때문에 워싱턴의 전쟁광들은 다른 지역에 대한 개입력을 잃고 있다. 라틴아메리카가 그렇고 한반도도 마찬가지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의 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 정부에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은 이라크인들이 벌이고 있는 저항 덕분”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 정부가 핵보유를 선언하고 미사일을 쏘 올려도 부시 정부는 말로만 엄포를 놓을 뿐 군사적 개입은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겪고 있는 위기를 극대화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테러와의 전쟁”의 ‘또 다른 작품’인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국은 위기에 처해 있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이미 남부를 장악했고 연합군을 괴롭히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의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공격은 중동 지역에 더 큰 불안정성을 넣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과 시리아까지 위협하고 있다. 제5차 중동전쟁이라는 매우 위험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전쟁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의 일부다. 이라크 수령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겪고 있는 지배력의 약화를 지금 이스라엘이 메워주고 있는 셈이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존재 자체가 미국의 중동 패권 정책을 위한 것이다.

한국의 반전 운동은 이라크 점령과 이스라엘의 공격 등과 같은 쟁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꾸준히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한국군이 이라크로 파병됐다고 해서, 운동이 파병을 막지 못했다고 해서 반전 운동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안 된다. 예컨대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은 미국 정부의 추가 파병과 전력 증강 등에 굴하지 않고 10년 동안이나 반전 운동을 조직했고 마침내 승리했다.

게다가 미국의 이라크 전쟁 위기는 베트남 전쟁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한미FTA가 중요하므로 한미FTA 반대 운동에 집중하자는 견해도 있다. 물론 한미FTA 반대 운동을 적극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 운동을 위해 반전 운동을 기각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우리가 맞서 싸우는 상대의 약점을 알아야 한다. 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각국 좌파 정당들은 하나같이 반전평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박노자

미FTA를 추진하고 있는 부시와 노무현 정부는 또한 “테러와의 전쟁”의 중요한 동맹 세력이다. 지금 이 동맹이 이라크에서 겪고 있는 약점을 공격하는 것은 한미FTA 반대 운동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라크 점령 종식과 자이툰 철군을 위한 운동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이라크에 파병한 것 자체가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이미 적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라크 점령을 비롯해 중동의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한 반전 운동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를 열강의 전쟁 기지, 심지어 전쟁터로 만들 수도 있는 “전략적 유연성”에 맞선 중요한 투쟁이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반전 운동의 일관된 핵심 주축 세력이 돼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2004년 김선일 씨 납치·피살 때 반전 운동에서 매우 중요하고 능동적인 구실을 했다.

하반기 9월 24일 “자이툰 연내 완전 철군을 위한 9.24 반전 행동”을 비롯해 지속적이고 더 광범한 반전 운동 건설에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자.

이 과정에서 우리 민주노동당은 열우당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진지한 반전 평화 정당의 면모를 대중에게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